전남 유기농생태마을 4곳 신규 지정

여수 옥적, 장흥 모령, 영암 선암·송내외 마을 최대 5억원 지원
2026년까지 100개소 지정 목표…도농 공동체 실천 모델 육성

전남도가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기후변화 대응, 주민 소득증대 성공모델 구축 등을 위한 '상반기 유기농 생태마을' 4개소를 신규 지정했다. 현재 49개소로 2026년까지 100개소까지 육성한다는 목표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친환경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이면서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이 30% 이상으로 생태 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중순까지 접수해 5월 하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평가를 거쳐 여수 옥적마을, 장흥 모령마을, 영암 선암마을, 영암 송내외마을을 선정했다.

여수 옥적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35.4ha로 유기농 32.7ha, 무농약 2.7ha의 인증을 받았다. 마을 주변 저수지와 폐교를 활용한 여수예술인촌이 마을에 위치해 자연 풍경과 문화가 어우러진 환경 친화마을이란 평가를 받았다. 장흥 모령마을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이 22.4ha로 유기농 18.4ha, 무농약 4ha의 인증을 받았다. 마을회관 앞 벽화가 인상적이고, 마을돌담, 흙벽, 장미덩쿨담과 우물이 있는 등 생태 환경이 잘 어우러진 마을이다.

영암 선암마을은 인증농가 15호, 인증 면적 27.7ha로 유기농 100% 마을이며, 벼, 녹차, 콩 등 다양하게 인증을 취득했다. 인근에 숨은 명소인 한국제다에서 1979년 조성한 유기농 녹차밭(덕진 녹차밭)에 올라가면 월출산 국립공원 등 탁 트인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

영암 송내외마을은 인증농가 18호, 유기농 인증 면적 30ha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선시대 정자인 보물 제2054호 영보정, 전남 문화재 제247호 송양서원 등 유서깊은 문화자원이 있다. 한옥 숙박시설인 용두레 도농교류센터가 있어 시너지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4개 마을에 생산·가공·유통·체험 관련 시설장비 등 최대 5억원을 지원해 유기농생태마을 육성사업과, 마을 주민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가꾸기 등 마을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업환경 보전 가치가 높고 친환경농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마을을 발굴해 유기농 생태마을로 육성하고 있다"며 "유기농생태마을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대하고 도·농 공동체를 실천하는 성공모델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가치가 높은 마을을 유기농생태마을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 4개소를 포함 총 49개소의 유기농생태마을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9월께 추가 신청을 받아 하반기 유기농생태마을을 신규 지정하는 등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라 2026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영록(가운데) 전남지사와 목포대 송하철 총장, 순천대 이병운 총장이 7일 오전 도청 접견실에서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해 건강권 보장하라"

5개 새마을단체 성명…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촉구

전남새마을회 등 5개 새마을단체가 7일 전남새마을회관에서 전남에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과 생명·건강권 확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지역 새마을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전남은 전국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규모 석유화학·철강단지 등이 있어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등 의료 수요가 아주 높은 지역임에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음을 지적했다. 또 지방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치료받을 권리 보장과 지역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전남도에는 의과대학이 없어 매년 70만명의 도민이 타 시·도로 원정 진료를 떠나고 있다. 이에따른 의료비 유출만 1조5000억원에 달해 사회적 비용 경감 차원에서도 전남지역 의대 설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날 성명서 발표 현장에는 전남 17만 새마을 가족을 대표해 시·군 새마을회장 등 30명이 참여해 전남의 의료 현실과 공공의료 기반 시설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전남도민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다.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은 "지역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새마을정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 차별로 인한 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17만 새마을가족의 염원을 담아 전남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구두 뾰족한 사람은 까칠·납작하면 신비주의"

광주시청내 수선소 운영 김기승씨, 월례 조회서 공직자 변화상 발표

광주시청 안에서 20년 가까이 구두수선소를 운영중인 '신발 박사'가 신발을 통해 느낀 공직자의 변화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청 구두수선소 주인 김기승씨는 7일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조회에서 '옛날 공무원 vs 요즘 공무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씨는 2005년부터 구두수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안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다.

김씨는 기존과 다르게 정기 회원제를 운용하는 등 의욕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하고, 정기 장학금 기탁 등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두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유추하는 나름의 분류 방법을 소개했다.

김씨는 "구두코가 뾰족한 사람의 성격은 까칠하지만 추진력이 강하고, 납작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노출하지 않는 신비주의자가 많다"면서 "구두코가 타원형이면 퍼주는 스타일"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때 500명에 달했던 정기 회원이 250여명으로 줄었지만, 획일화한 디자인의 검은색 구두가 태반이었던 10년 전과 달리 지금은 이름도 알 수 없을 만큼 스타일이 다양해졌다며 달라진 '개성 시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씨는 또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자신의 영업 노하우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자세와 밝은 표정으로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청에 등장한 다양한 신발들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직원들이 등장했다는 뜻일 것"이라며 "세대도, 가치관도 다른 직원들이 함께 일할 때 시너지를 내기도 하지만, 어려움도 많고 변화된 상황에 맞는 태도와 기술이 필요해졌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다양성이 늘어난 사회에서 행정이 발휘해야 할 기술은 대상을 섬세하게 구분해내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서로 다른 필요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일이 오늘의 행정에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사업 진행 지지부진"

서용규 시의원, 적극 행정 촉구

광주시의회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은 7일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및 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환경복지위원회의 2022 회계연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광주시의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 사업(2019~2023년)이 일부 장애인 단체의 사업부지 이전 요청 등으로 인해 용역이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 가량 중단됐다. 또한,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 사업인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국비만 36억원이 편성된 채 시비는 아직 편성되지 않고 있다.

장애인 복합수련시설은 2023년 상반기부터 공사가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건축설계 용역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고, 올 하반기 공사 추진 예정이었던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도 설계 공모 운영 및 지침 일부 개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더디게 추진되고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단체 간 이해득실과 관련해 의견 차이 등의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담당 부서의 빠른 추진 의지과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 1인당 국민연금 수령액 전국 최하위"

최선국 도의원 "빈곤 대책 시급"

최선국(민주·목포 1)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372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전남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전남의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8만 1000원으로 전국 최하위"라며 "2023년 1인 필요적정 노후생활비인 177만 300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전국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에 따른 2023년 1월 1기준 전남도 내 시·군별 1인당 월평균 국민연금 지급액의 경우 광양 63만 3719원, 진도 41만 4091원 등으로 지역별 격차가 크다고 지적한 뒤 "전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의 노인 빈곤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라며 "전남의 실정에 맞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노인 빈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